

‘페퍼 인수’ SOOP, 새 시즌 V리그 나선다

KOVO, 가입 승인...이민원 구단주·이병호 단장 체제 연고지 광주 협의 추진...“신임 감독 이번 주 발표 예정”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기업 SOOP이 한국배구연맹(KOVO) 신규 회원 가입 승인을 받으며 프로배구 무대에 공식 입성했다.

페퍼저축은행으로부터 여자 프로배구단 AI페퍼스를 인수한 SOOP은 2026~2027시즌부터 V리그 여자부에 참가하며 새로운 구단 체제 구축에 나선다.

KOVO는 2일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 대회의실에서 이사회와 임시 총회를 열고 SOOP의 신규 회원 가입 안건을 심의해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여자 프로배구는 다음 시즌에도 기존과 같은 7개 구단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SOOP은 지난달 페퍼저축은행이 운영하던 AI페퍼스 인수를 공식 발표할 때 이어 이날 회원 가입 절차까지 마무리하며 구단 운영의 법적·행정적 기반을 모두 갖추게 됐다. 구단 운영은 SOOP의 자회사인 SOOPTV(술티비)가 담당한다.

구단주는 이민원 SOOP 대표이사(가명)로, 단장에는 이병호 전부, 사무국장은 권소운 사무국장(가명)이 선임됐다. SOOP은 향후 선수단 운영과 프런트 조직 구성, 연고지 협력 체계 구축 등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배구계의 관심은 이제 새 구단의 본격적인 시즌 준비 과정으로 향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감독 선임이다. SOOP은 복수의 감독 후보군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해 왔으며 곧 신임 사령탑을 확정할 예정이다. 감독 선임이

마무리되면 코칭 스태프 구성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반면 지난 시즌까지 팀을 이끌었던 장소연 감독과 기존 코치진은 새 체제에서 함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단 구성 작업도 본격화된다. SOOP은 기본적으로 AI페퍼스 소속 선수들을 승계하는 방향으로 팀을 꾸릴 계획이다.

다만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아웃사이드 히터 박재현과 이한비가 각각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로 이적하면서 전력 보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외국인 선수 영입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AI페퍼스는 지난 5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서 선수를 지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SOOP은 트라이아웃 참가 선수 가운데 미계약 선수들을 대상으로 영입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시아권 선수 역시 자유계약 체제로 전환된 만큼 별도의 계약 절차를 진행한다.



이민원 구단주



지난 2025-2026시즌 V리그 마지막 경기를 마친 AI페퍼스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OVO

연고지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광주 연고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SOOP은 지난 5년 동안 AI페퍼스가 구축해온 지역 팬층과 밀착 마케팅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소운 SOOP 사무국장은 “현재 새로운 구단명 작업과 감독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이르면 이번 주 정도에는 확정을 짓고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고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이후 본격적으로 광주와 협의하게 된다. 선거가 마무리되는 대로 광주에서도 관련 TF팀을 꾸릴 것으로 한다”면서 “선거 이후 미팅을 진행해 양 기관에

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페퍼저축은행과 광주시 간 기존 연고지 협약은 지난달 만료됐지만, 이는 구단 매각 이전 체결된 계약인 만큼 SOOP과 광주시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7월 전남광주특별자치 출범을 앞두고 지역을 대표하는 프로스포츠 구단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연고지 이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시즌 준비는 다소 촉박한 상황이다. 다른 구단들이 이미 선수단 소집과 훈련에 돌입한 가운데 SOOP은 감독 선임과 선수 영입, 프런트 구성 등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창단 초기 AI페퍼스가 겪

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조직 정비와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

SOOP은 그동안 e스포츠 구단 운영과 다양한 스포츠 종목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 제작 및 중계 경험을 쌓아왔다. 최근에는 한국실업배구연맹·프로배구 퓨처스 챔피언스 예선 전 경기를 생중계하는 등 배구 콘텐츠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SOOP 관계자는 “KOVO 가입 승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구단 운영 준비에 나서게 된다”라며 “배구 팬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구단 문화를 만들어 가고, 배구 산업 저변 확대와 팬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 황동하·박재현, KBO 5월 MVP 후보 선정

황, 5경기서 4승·평균자책점 1.48로 ‘맹활약’ 박, 25경기 타율 0.330...결승타 4개 승리 견인

KIA 타이거즈 투수 황동하와 외야수 박재현이 한국프로야구 5월 월간 최우수선수(MVP) 후보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KBO는 2일 “5월 MVP 후보로 투수 황동하, 김진성·손주영(이상 LG트윈스), 양창섭·오려클린(이상 삼성라이온즈), 타자로는 박재현, 강백호·허인서(이상 한화이글스), 최형우(삼성), 최원준(KT위즈)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동하는 5월 한 달 동안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줬다. 5경기에 선발 등판해 패배 없이 4승을 수확하며 다승 공동 1위에 올랐다. 평균자책점은 1.48로 후보들 가운데 가장 낮았고, 30.1이닝을 소화하며 이닝 부문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지난달 2일 광주 KT위즈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의 완봉투를 선보이며 팀 승리를 견인했다. 안정적인 제구와 공격적인 투구를 앞세워 상

대 타선을 압도하며 KIA 선발진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황동하는 시즌 초까지만 해도 로테이션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자원이었지만, 5월 들어 꾸준한 호투를 이어가며 사실상 팀의 핵심 선발 자원으로 도약했다.

KIA가 중위권 경쟁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도 그의 활약이 큰 몫을 차지했다.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다.

김진성은 14경기에서 8홀드를 기록하며 홀드 부문 선두에 올랐고, 손주영은 10경기에서 8세이브를 수확하며 공동 선두를 차지했다. 오려클



황동하



박재현

린 역시 5경기에서 4승을 거둬 황동하와 다승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타자 부문에서는 박재현이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박재현은 5월 25경기에서 34안타 7홈런 20타점 타율 0.330을 기록하며 KIA 타선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빠른 발을 활용해 도루 8개를 성공시키며 리그 2위에 올랐고, 홈런 부문에서도 공동 5위에 오르는 등 장타력까지 뽐냈다.

무엇보다 승부처에서의 집중력이 돋보였다. 박재현은 5월 한 달 동안 결승타 4개를 기록하며 이번 시즌 리그 1위에 올랐다.

경기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한 방으로 팀 승

리를 이끌며 ‘클러치 히터’의 면모를 보여줬다.

지난해까지 유망주로 평가받던 박재현은 올 시즌 리드오픈으로 자리잡으며 맹활약하고 있다. 공수주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KIA 외야의 새로운 주전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타자 부문 경쟁 역시 치열하다.

강백호는 23경기 92타수 39안타 8홈런 30타점 타율 0.424 장타율 0.783으로 타점 1위, 장타율 2위 등에 올랐다.

허인서는 23경기에서 9홈런을 몰아치며 이번 시즌 선두를 차지했다.

최원준은 25경기 100타수 45안타 3홈런 타율 0.450 출루율 0.517으로 타율 1위, 안타 1위, 출루율 1위를 모두 휩쓸었다.

월간 MVP는 팬 투표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를 합산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팬 투표는 오는 7일까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 SOL뱅크’에서 참여할 수 있다.

월간 MVP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기념 트로피가 주어진다. 또 신한은행의 후원을 통해 MVP 수상 국내 선수의 출신 중학교에 해당 선수 명의로 20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시민 참여 버스 광고 운영 명진택과 협업...QR코드 활용

프로축구 광주FC가 공식 스폰서인 ㈜명진택과 손잡고 시민 참여형 버스 광고를 선보이며 지역 밀착 마케팅 강화에 나선다.

2일 광주에 따르면 최근 명진택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버스 광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 노출 중심의 기존 교통 광고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형 광고로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구단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민들과 소통하며 광주FC와 지역사회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고에는 광주FC 홍보대사인 조민희 선수들이 시민에게 직접 영상통화를 거는 듯한 연출을 적용해 눈길을 끈다. 광고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조민희 또는 선수들의 영상통화 화면이 재생되며, 팬들은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답변을 받고 싶은 선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됐다. 광주는 매 경기마다 참여 팬 가운데 1명을 선정해 선수단이 직접 영상 메시지를 제작할 방침이다. 완성된 영상은 홈경기 전광판을 통해 공개된다.

구단은 이번 이벤트가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동시에 자연스러운 SNS 공유와 온라인 바이럴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이번 버스 광고는 시민들이 단 순히 지나쳐 보는 광고가 아닌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과 협력해 광주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버스 광고는 광주 시내 주요 노선 버스에서 운영되며 시즌 종료 시점까지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장애인체육회-쌍교소꿉갈비, 선수 일자리 확대 맞손

지역 외식업체서 최초 참여 장애인체육 선수 3명 채용 9개 기업·기관 93명 고용 지원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지역 대표 외식기업과 손잡고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확대에 나섰다.

2일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쌍교소꿉갈비와 ‘장애인체육 선수 취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체육 선수 3명을 입단시켰다.

이번 협약은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가 추진하는 ‘장애인체육 선수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과 ㈜쌍교소꿉갈비의 ‘장애인 취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의지가 맞물리며 성사됐다.

특히 공공기관과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장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일 ㈜쌍교소꿉갈비와 ‘장애인체육 선수 취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체육 선수 3명을 입단시켰다.

어인체육 선수 고용 사업에 지역 외식업체가 처음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지역 대표 외식업체가 장애인체육 발전에 동참하면서 장애인 선수 고용 모델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채용된 선수는 양궁 종목 안성표(W1), 볼링 종목 노경민(TPB4), 좌식배구 종목 오한섭(VS1) 등 3명이다. 선수들은 각 종목 지정 훈련장

에서 훈련과 대회 참가를 통해 근무를 수행하게 되며,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는 종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근태 관리와 선수 지원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채용으로 총 9개 기업·기관에서 93명의 장애인체육 선수를 고용·운영하게 됐다. 기관별 고용 인원은 한국전력공사 30명, 한전KPS 23명,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4명, 한국알프스 7명, 우미건설 7명,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5명, 한국광기술원 3명, 쌍교소꿉갈비 3명, 광주테크노파크 1명이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장애인 선수들이 생계 부담없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쌍교소꿉갈비와 뜻을 함께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모델을 발굴해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